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 근·현대 문학사를 중심으로 -

양 영 길*

目 次

1. 머리말
2.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 1)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경과와 그 필요성
 - 2)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대상과 그 방법
3.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전제와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제주 지역문학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제주 지역문학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제주의 지역문학을 이끌어 나갈 후진들을 위해 그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제주문학'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한 물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문학'이나 더 구체적으로 '제주 지역문학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이러한 질문에 다소나마 접근할 수 있다.

그 동안 제주 지역문학은 중앙의 그늘 밑에서 그저 작가는 작가대로 후진은 후진 나름대로 개개인의 역량에 내맡겨진 상태였다. 등단을 많이 하면 지역문학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막연하고 안이한 자세로는 제주 지역문학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는커

* 제주대 강사

닝 이에 대한 관심도 끌어낼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주 지역문학의 경쟁력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주 지역문학사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되 근·현대문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한계는 구체적 논의가 아닌 원론적 차원에 머문다는 점이다.

2.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그러면 이러한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와 연구 필요성, 그 대상과 범위, 연구 방법을 논의하면서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경과와 그 필요성

(1)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경과

제주 지역문학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어 90년대 중반 이후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濟州文學(1900~194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1995)의 ‘발간사’에서는 “그 동안 濟州文學 研究는 口碑文學에 치우쳤다. 민요나 설화 등 구비문학은 제주민들 가운데 庶民들의 세계를 다룬 문학이다. 제주민 가운데는 서민들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兩班儒林들이 있었고, 開化 이후에는 新知識人들도 있었다. 이들의 세계를 다룬 문학도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주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따라 제주 지역문학에 대한 자료가 계속 발굴·정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학단체나 연구회 등에서 특집이나 학술회의 형식으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1992. 12월 “제주 민속문학의 현대문학적 변용”¹⁾

1) “제주 민속문학의 현대문학적 변용”(『제주문학, 22호, 1992. 12) - 문성숙의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문무병의 「제주무가의 현대문학적 변용」, 좌혜경의 「제주민요의 현대문학적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1994. 10월 “제주문학의 定立”²⁾
 1998. 7월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³⁾
 1999. 9월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⁴⁾
 2000. 5월 “4·3문학의 재조명”⁵⁾
 2000. 10월 “제주의 문학과 문학사”⁶⁾

이러한 문학단체의 특집이나 연구회와 학회의 학술회 형식이 아닌 ‘문학사 기초 자료’⁷⁾를 비롯하여, ‘문학사적 자료’⁸⁾, ‘개인적 연구물’⁹⁾들이 제주지역의 문학지나

변용

- 2) “제주문학의 定立”(‘94 탐라문화 학술 심포지엄의 1994. 10) - 김영돈의 「민요와 제주문학」, 현길언의 「설화와 제주문학」, 소재영의 「한문학과 제주문학」, 김영화의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 3)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제주국제협의회 제 9회 학술회의의 1998. 7) - 현길언의 「바다와 섬의 문학성과 문학의 본질」, 김병택의 「제주 詩에 나타난 섬과 바다」, 김영화의 「제주 소설에 나타난 섬과 바다」, 고시홍의 「제주섬의 소설적 변용」
- 4)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제주국제협의회 제 10회 학술회의의 1999. 9) - 현길언의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문성숙의 「제주 역사 자연과 문예 창작」
- 5) “4·3문학의 재조명”(‘제주작가. 4호, 실천문학사, 2000. 5) - 김동윤의 「4·3문학 어디까지 왔나」, 현길언의 「제주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현기영의 「4·3을 탐구하면서 재발견한 몇 개의 화두들」
- 6) “제주의 문학과 문학사”(영주어문연구회 제 1회 학술심포지엄, 2000. 10) - 양영길의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김동윤의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 7) 「제주문학사 연표(1914~1994)」,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작품집 목록(1915~1994)」,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濟州文學(1900~194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1995), 「제주문학전집I~VII」(제주문인협회, 1996~1998), 「문학 속의 제주 시선집」(제주문화원, 1997)
- 8) 고시홍의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제13집(제주문인협회, 1984)」·「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제주 문화예술 백서」(예총제주도지회, 1988)」·「문학」, 「제주도지」 제3권(제주도, 1993)」·「문학」, 「북제주군지」하권(북제주군, 2000)), 양중해의 「제주문단의 형성 과정—제주문단사 서설」, 「제주문학: 제19집(제주문인협회, 1990)」, 김동윤의 「한국전쟁기의 제주문단과 문학」(‘제주작가. 5호, 2000. 11)
- 9) 이를 발표 연대별로 정리하면, 양영길의 「삶과 역사의 현장 미학- 제주시조를 중심으로」(‘제주시조. 2집, 1993. 12), 김병택의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 「변방의 자연과 삶-제주시인들의 시 세계」(‘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현길언의 「제주학 연구 방법-문학을 중심으로」(‘제주도 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김영화의 「설화의 현대화」·「제주 역사와 문학」·「일제시대의 제주문학」(‘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김동윤의 「4·3소설의 전개 양상」(‘탐라문화. 제19호, 1998)·「제주문학의 오늘과 내일」(‘제주작가.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9) 김병택의 「제주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제주작가.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9), 송상일의 「천사의 풍문」(탐라목석원, 1999), 김동윤의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김병택의 「제주시인들의 시 세계(1)」·「제주 시인들의 시 세계(2)」(‘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

연구회지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개개의 작가·시인론이나 작품론, 또는 서평까지 포함하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연구 성과들이 많이 쌓였다.

작가·시인론, 작품론, 서평 등을 제외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제주 지역문학에 관한 원론적 측면의 연구, 둘째로 제주의 민요나 설화를 현대 문학에 어떻게 수용하는가와 관련된 연구, 셋째로 제주지역의 현대문학 자체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원론적 측면의 연구와 민요와 설화의 현대문학적 수용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분적이며 대부분 제주 지역문학의 현대문학 자체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관한 연구들로 4·3을 비롯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 자연과 환경에 관한 인식 등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은 김영화, 김병택, 현길언, 문성숙, 송상일, 김동윤, 양영길, 좌혜경, 문무병, 고시홍, 김진하 등이며, 문학사적인 자료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양중해, 고시홍 등이며 최근에 김동윤이 이에 관한 서술의욕을 보이고 있다.

(2)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필요성

그러면 제주 지역문학사 연구는 왜 필요한가. 오늘날은 대중적 문화의 급격한 표준화로 말미암아 예술적 개성의 틀이 파괴되고, 문학 매체의 다변화로 말미암아 문화의 획일화가 촉진되어 지역문학의 독자성이나 특수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사 담당층의 구조 체계 자체에서도 제주 지역문학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주체적인 힘으로서의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문학과 중앙문학의 구획은 공급의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공급의 문제에서 수요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망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어 지역문학과 중앙문학 사이의 두꺼운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매체의 다변화를 보고만 있어서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버리고 소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 때 국가적 견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민중의 생활이라든가 지방의 특질 등을 경시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것이 오직 국가 총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출판부, 1999), 양영길의 「4·3문학의 흐름과 과제」(『제주작가』 2호, 실천문화사, 1999. 9), 김진하의 「한국문학에서 독자적 단위로서의 제주문학」(『제주작가』 5호, 2000. 11)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폐단은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지역은 중앙의 절대적 규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졌다. 또 개발논리와 발전 논리에 문화와 관련된 문체는 위무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두 번째이거나 그 뒷전이였다.

오늘날까지도 제주 지역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도 정치와 경제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앞으로는 더 밀려날 위기에 몰려 있다. 문학사 담당자 자체 구조와 조직에 의해 한국문학사나 지역문학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여지고 그 지원에 의해 창작의 여력과 의욕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사적인 인식차원으로부터 지역문학사적 인식차원으로 그 인식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적 문제부터 연구해야 한다.

필자는 “지역문학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문학사를 이끌어 나갈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선망의식의 근간인 중앙지향적 심리를 조장하여 진정한 지역문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물론 진정한 지역문학사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뿐”¹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윤도 “20세기 제주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한국문학사의 보완에 기여함은 물론 근대 이후 제주인들의 정신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정립하는 일도 될 것이다. 제주문학사를 올바르게 써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동안의 논의들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그 서술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¹¹⁾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학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천문학임과 아울러, 지난날의 문학연구 인습에서 벗어나려는 대항 문학이며, 굳어진 문학소통 관행을 깨뜨리는 혁신문학이어야 한다.”¹²⁾는 박태일의 주장은 지역문학 연구의 단일함에 대한 항변이며 필요성에 대한 강변이기도 하다.

결국 제주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는 문학사 쟁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문학을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키워나감과 동시에 한국문학사의 인식 지평을 새롭게 열어나갈 강력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인식 방법을 재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0)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제주의 문학과 문학사」, 제1회 영주어문연구회 학술심포지엄, 2000. 10)

11)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제주의 문학과 문학사」 제 1회 영주어문연구회 학술심포지엄, 2000. 10)

12)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지역문학연구」 제2호, 1998), 128~130쪽.

2) 제주 지역문학사 연구 대상과 그 방법

(1)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대상

그러면 이러한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대상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앞서 '제주 지역문학사란 무엇인가'부터 의미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제주문학'은 무엇이고 '제주 지역문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제주문학은 제주의 문학이고 제주 지역문학은 제주 지역의 문학이라고 하면 아무런 구분도 서지 않는다. 제주적 특성이 있는 문학을 제주문학이라 하고 제주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문학을 제주 지역문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제주'와 '제주 지역'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제주'라 하면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전라, 충청'처럼 단순한 공간 범주인데 반하여, '지역'은 '중앙'과 대비되는 공간 범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문학'이라고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중앙문단 중심의 문학'과 상대적인 범주에 해당한다. '제주문학'이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간을 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주 지역문학'은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또 '제주 지역문학사'는 무엇인가. 이를 그냥 제주 지역문학의 역사라고만 이해해서는 문학사적 인식의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주 지역문학사 문제의 쟁점에서 그 결집력을 얻어낼 수 없게 되어 헛돌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학은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관을 가지고 인식해야 할 지역문학사의 대상이다. 지역문학이 거기 있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의지에 의하여 지역문학사의 상(像)은 그려지고, 또 이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¹³⁾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주의 근·현대 지역문학사를 연구함에 있어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앞서서 우선 제주지역의 '근·현대문학'은 무엇인가. 근·현대 시기의 문학 전반인가. 아니면 근·현대 시기의 근·현대적 장르의 문학인가. '근대문학', '현대문학'하면 으레 근대적·현대적 장르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인식은 기간(既刊)의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강제된 오류의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의 근간은 앞 시대 부정을 요구하던 일제강점

13)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기 식민사관적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학문적 전통을 이은 학자들이 광복 후 지금까지도 앞 시대와의 단절적·불연속적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한국문학사 인식지평이 아직도 그다지 넓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제주 근·현대 지역문학사는 근·현대적 장르라는 제한적 인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근·현대적 장르에 국한시키는 경직된 인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제주 민속문학의 현대문학적 변용”에서 다루고 있는 문성숙의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문무병의 「제주무가의 현대문학적 변용」, 좌혜경의 「제주민요의 현대문학적 변용」 등과 현길언의 「설화와 제주문학」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주 지역문학의 풍부한 자원을 현대문학 작품 속에 용해시킬 수 있도록 그 인식 지평이 확대될 때 제주 지역문학사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문학사의 연구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필자는 ‘지역문학사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서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 작가, 독자, 작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¹⁴⁾ 이를 요약하면 지역은 인위적·행정적 구획이 아닌 자연적·생태적 구분이어야 하며, 작가는 성장 시기와 부모의 고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독자는 지역언어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작품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학인 1차적 자료와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2차적 자료로 나누어 야함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서는 문학작품의 범위에 국한시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런 작품에 대하여 김영화는 “제주인이 창작한 작품은 모두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제주적, 향토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 제주문학의 정수에 들어간다.”¹⁵⁾고 정리하고 있으며, 김병택은 제주 시인을 “제주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제주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체험한 시인”¹⁶⁾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소재영은 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한문학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에서 ‘첫째로 조선조 사화 당쟁과 관련하여 관각문인 지식인들이 제주에 유배되어 온 유배인의 작품, 둘째로 제주도에 목사, 관관 등 관인의 자격으로 입도한 사람의 작품, 셋째로 순수하게 제주에서 출생하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으로 제주에 뚜렷한 문학적 발자

14) 위의 글.

15) 김영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5), 270쪽.

16) 김병택, 「변방의 자연과 삶」(『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281쪽.

취를 남겨 놓은 인물들의 작품¹⁷⁾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길언은 제주 지역문학을 “제주사람에 의해, 제주의 역사와 제주 사람의 생활을, 제주언어에 의해서 형상화한(된) 작품이라는 식의 개념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¹⁸⁾고 그 범위 설정의 난맥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제주문학으로서의 변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주변성’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 주변성을 드러낸 작품을 제주문학의 범주에 포함¹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동윤은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문학사에서는 문단 형성과 작품 창작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작가, 작품 등이 무시될 수 없으므로 제주인이 아니어도 제주에 머물면서 문학 활동을 한 경우를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학이라는 개념도 도입해야 한국전쟁기에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활동 등이 20세기 제주문학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제주 고전문학사를 서술할 경우 조선시대의 유배문학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²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20세기 제주문학사는 20세기에 제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학을 포함하여 그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대상으로써의 문학 작품은 제주 지역역사와 관련하는 문체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정서가 그 심층에서 숨쉬고 있는 복류하는 역사인 ‘역사의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즉, 이는 작품 자체의 문체이며 제주 지역문학사적 가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 지역문학사의 연구 방법

그러면 제주 지역문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기간(既刊)의 한국 근·현대문학사 서술은 1922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제 강점기의 실증사관으로부터 헤어지지 못하여 객관적·이원적·불연속적·판념적 인식을 토대로 하는 매마른 역사 서술을 자초하여 문학사를 앙상한 형해로만 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사의 중핵적 요소인 문체와 분석과 가설을 중심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위성적

17) 소재영, 「한문학과 제주문학」(『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5), 241~242쪽.

18) 현길언, 「설화와 제주문학」(『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9), 229쪽.

19) 현길언, 「제주학 연구 방법론-문학을 중심으로」(『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39쪽.

20)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요소인 사실과 고증과 설화들을 숭상하고 이에 열중해 왔다. 이제 숭사실(崇事實)·숭고증(崇考證)·숭설화(崇說話) 들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사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주 지역문학사를 살아 있는 문학사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숭문제(崇問題)·숭분석(崇分析)·숭가설(崇假說) 들을 중심으로 그 인식 지평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기간의 한국문학사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문학사적인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제주 근·현대 지역문학사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근간은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섬과 바다'라는 공간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4·3'이라는 수난사적 인식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갈래의 인식의 근간은 대체적으로 수동화되고 있다. 최초로 제기된 문제를 발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동어반복적·중언부언적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제주 지역문학사의 문제가 탄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제주 지역문학사의 인식 지평을 능동적으로 개척하여 열어 나가지 못하고 '주변과 변방', '섬과 바다'에 갇혀 있다고나 할까. 제기된 문제나 쟁점들이 발전적·비판적으로 그 인식 지평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문학사의 문제나 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탄력성 유지와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문학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제주 지역문학사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주적인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물음부터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진하는 "제주의 문학에서 '제주적인 것'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한국적인 것'을 규정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제시하기는 쉬우나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문화적 특성의 규정이란 본래 국외자의 눈에는 차이점들만 보이고, 통일성이 보이지 않으며, 그 문화의 일원에게는 통일성은 막연히 감지되나, 특성은 자각하기 어려운 속성"²¹⁾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반사를 지방에서 증명하기 위한 역사」나 「중앙을 의식한 역사」가 아니라 「땅에 새겨진 역사, 땅속에 묻힌 역사, 땅과 함께 전해져 온 역사를 지방의 향기와 함께 전하는 것」이며, 「인간성 우선」²²⁾하는 것이 지방사라고 하가·노보루는 설명하고 있다.

21) 김진하, 「한국문학에서 독자적 단위로서의 제주문학」(『제주작가』 5호, 2000, 11)

22) 하가·노보루(芳賀 登), 「地方文化の保全」(出博東·小林幸夫 共譯)(과학교육사, 1985), 10쪽.

이러한 지역문학사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우리들은 지역문학사를 역사서술의 수단인 통시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사관(史觀)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근대화 패러다임과 발전이론에서 탈피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의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동하는 문제를 골간으로 파악된 문제중심의 역사를 통하여 지역문학사의 문학사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문학의 든든한 뿌리는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생명력을 제대로 인식하는 이론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이론 정립은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 연구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며, 실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반드시 환류할 수 있는 이론이라야 한다. 환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학 담당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지역문학사는 인식에 이르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하나 둘 본연의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문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주 지역문학사의 본연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 지역문학과 제주지역 공동체로서의 자기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 지역문학사의 서술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의 대상은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환경, 역사적 배경, 사건 사고, 사회구조, 지역 정서, 사회 심리, 사상적 배경과 그 구조, 시대 정신,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세계관과 가치관, 상권과 그 변천, 의식이나 이념의 변천, 사유 방식, 상상의 구조, 각종 통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론적 관점, 변천과정, 정신사적 추적,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 등 그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는 제주 지역 공동체의 모든 것이 제주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이 된다. 현길언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작품론과 작가론, 제주지역의 문화와 실상을 정리하는 문학사적 연구 등 일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변부성, 섬 문학성, 해양성, 역사·사회성, 제주문학의 특성, 구조, 제주적인 모티브’ 등의 문제를 상정하고 있다. 김동윤은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에서 ‘시기구분’, ‘시기명명’, ‘시기별 개관과 서술 주안점’ 등 구체적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주의 근·현대 지역문학사 서술의 범위는 제주 지역문학의 총체성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사를 종합적·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심층을 이루고

23)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있는 장기지속적인 구조와 주기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 씌어진 제주 지역문학은 독자와 더불어 끊임없이 환류하면서 재생산에까지 이르러야 그 가치 지평을 확보하고 역동하는 문학사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 근·현대 지역문학사 연구 방법은 현재적 시점에서 제주 지역문학의 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의 문제에 귀결될 것이다. 그 '의의'와 '목적', '나아갈 방향 모색'도 결국 봄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봄 조성이 제주 지역문학사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유지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사 담당층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실천의 마당으로 불러내느냐의 문제라 할 것이다. 제주 지역문학사의 활성화는 제주 지역문학사의 쟁점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될 때, 그 활성화의 에너지는 저절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3.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전제와 과제

그러면 제주 근·현대 지역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 전제해야 할 내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는 앞에서 살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그 전제해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제주 지역문학만이 안고 있는 절실한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가면서 학제적 접근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거시적·총체적·개방적이어야 한다.

둘째, 제주 지역문학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문학담당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논의하고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근간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환류시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제주의 지역문학사 서술은 제주 지역문학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 문제와 동떨어지면 지역문학사로서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없음은 물론 활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 지역문학 전반에 걸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하게 되면 문학사 담당의 한 축인 독

자와 제주 지역문학을 창조해 나아가야 할 후진들에게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제주 지역문학사에 대한 연구와 서술의 문제는 제주 지역문학사 이해의 폭을 바탕으로 그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할 수 없으면, 기간(既刊)의 문학사 서술에서와 같이 메마른 박물학에 머물고 말 수가 있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제주 지역문학 창작이라는 실천적 가치 창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문학사의 연구와 이에 대한 서술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제주 지역문학의 탄생에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제주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학사의 연구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변별성을 잃게 되고 동어반복적인 논의로 말미암아 탄력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여덟째, 제주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특수성과 독자성을 통해서 제주 지역문학의 본연의 모습을 제주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서술 방법은 개성서술적인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주민 중심의 정신으로 귀결시킬 수 있을 때 과거의 관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독자성·고유성·특수성 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근·현대 지역문학사 연구는 제주 지역문학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문학사의 인식비평을 넓혀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일관된 사관이 없는 막연하기 이를 데 없는 광역적 관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주 지역문학사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서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제적 관점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문제와 쟁점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는가는 제주 지역문학사의 건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주 지역문학사 연구는 제주지역 공동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의 한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이론과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그 인식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해야 할 내용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역문학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나친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자화자찬적인 연구, 우리 지역도 유구한 역사가 있었다는 소급적 차원의 연구, 우리 지역에도 중앙에서 인정하는 이러 저러한 유명한 시인과 작가가 있다는 식의 중앙의 결정력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 등이다.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여타의 지역문학사에서 흔히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이런 연구들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문학사의 쟁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정실에 얽매어 있거나 중앙의 패권적·권위적인 상징적인 폭력 구조에 얽매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문학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기간의 한국문학사적 인식 방법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역문학사에서 표준형을 찾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앙문학사의 부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문제는 지역적 실증이다. 만약 제주 지역문학사가 실증에 그쳐 한국문학이라는 중앙의 역사적 사실을 제주지역에서 검증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라는 지역을 빌린 것일 뿐이며 중앙의 하청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또 그 지역관이 자의성·편의성에 근간을 둔 편협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학사 연구는 폭넓은 시야, 참신한 시각과 도전적 문제의식 등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과제를 떠 안고 있는 셈이다.

이저런 우려에 대하여 “지역 가치를 널리 찾고, 그것을 지역의 삶 속으로 되돌려 주려는 노력이 지역 우월이나 지역 분리로 떨어지고 있지 않다. 거시 전망 위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움직임도 앞 시기와 달리 훨씬 기능적”²⁴⁾이라고 박태일은 안도하고 있다.

제주 지역문학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변’과 ‘변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에게 ‘주변적 인식’이나 ‘변방적 인식’은 언제, 어느 계층에서부터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는 탐라가 고려에 예속되면서 탐라개국 신화에서 ‘개국’이거나 ‘건국’이라는 불순한 언어를 박탈당하여 한낱 세 성씨의 씨족신화로 격하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억압적인 중앙의 상징적 폭력 앞에서 제주는 결국 주변이거나 변방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탐라 개국신화’라거나 ‘탐라건국신화’ 속에서는 중심부적 인식으로부터 세계를 쳐다볼 수 있었겠지만, 삼성신화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섬을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성이거나 변방성은 한 동안은 식자층의 의식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천지창조 신

24) 박태일의 앞의 글.

화'로부터 시작되는 제주의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이를 중심부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김진하는 “제주도의 신화가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상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근원적인 상상의 공간을 이루는 단초”²⁵⁾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주 지역문학사에서 이러한 주변성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근간은 어디에 있으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앞서 제기한 문제에 수동화되어서는 제주 지역문학사를 개척하는데 아무런 힘도 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의 예로 제주 지역문학사에서 ‘섬’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제주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덩이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예로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에서 주인공은 그가 살고 있는 땅덩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제기하면서 제주 지역문학 작품들을 연구한다면, 그 속에는 그냥 ‘섬’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아닌 또 다른 인식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문학사를 얼마나 건강하게 키워내고 그 건강성에 활력을 불어넣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 지역문학사의 현실을 얼마나 정직하게 담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느냐의 과제이기도 하다.

4. 맺음말

필자는 “한국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제주 지역문학을 같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이는 제주의 지역문학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²⁶⁾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이라는 코끼리의 눈으로 한라산이라는 제주 지역문학을 쳐다본다면 좁고 거친 땅덩이거나 아니면 한낱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다.

문학 매체의 다변화 속에서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경계가 무너진 만큼 지역의 특수성 있는 문학은 보편성보다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25) 김진하의 앞의 글.

26)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의 가치는 그냥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 인식에 의해서 지역문학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제기되고 세워진 연구가설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페브르의 말은 서울 중심주의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경구가 될 것이다. 이는 지역문학사적 관점으로 연구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다른 문학사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만은 아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날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삶을 개척하면서 전망하고 있는 미래의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고시홍,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제13집, 제주문인협회의 1984.
- _____,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제주 문화예술 백서』, 예총제주도지회, 1988.
- _____, 『문학』, 『제주도지』 제3권, 제주도, 1993.
- _____, 『제주섬의 소설적 변용』,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협의회 편, 1999.
- _____, 『문학』, 『북제주군지』 하권, 북제주군, 2000.
-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_____,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_____, 『제주문학의 오늘과 내일』, 『제주작가』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9.
- _____, 『4·3문학 어디까지 왔나』, 『제주작가』 4호, 실천문학사, 2000. 5.
- _____,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제 1회 영주어문연구회 학술심포지엄, 2000. 10.
- _____, 『한국전쟁기의 제주문단과 문학』, 『제주작가』 5호의 2000. 11.
- 김병택, 『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_____, 『제주 시에 나타난 섬과 바다』,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협의회 편, 1999.
- _____, 『제주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제주작가』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9.

- 김영화, 「제주문학사 연표(1914~1994)」,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 「제주 소설에 나타난 섬과 바다」,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협의회 편, 1999.
- 김진하, 「한국문학에서 독자적 단위로서의 제주문학」, 『제주작가』 5호, 2000. 11.
- 문무병, 「제주무가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 22호, 제주문인협회, 1992. 12.
- 문성숙,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 22호, 제주문인협회, 1992. 12.
- , 「제주 역사 자연과 문예 창작」,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 제주국제협의회 제 10회 학술회의, 1999. 9.
-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1998.
- 소재영, 「한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송상일, 『천사의 풍문』, 탐라목석원, 1999.
- 양영길, 「삶과 역사의 현장 미학- 제주시조를 중심으로」, 『제주시조』 2집, 1993. 12.
- , 「김태준의 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백록어문』 12집, 1996.
- ,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소고」, 『굴림문학』 3집, 1997.
- ,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8.
- ,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제주작가』 2호, 실천문학사, 1999. 9.
- ,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 『영주어문』 2집, 2000.
- ,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백록어문』 16집, 2000.
- ,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제1회 영주어문 학술심포지엄, 2000. 10.
-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 과정-제주문단사 서설」, 『제주문학』 제19집, 제주문인협회, 1990.
-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제40호, 1995.
- 제주문인협회 편, 『제주문학전집I~VII』, 제주문인협회, 1996~1998.
- 제주문화원 편, 『문학 속의 제주- 시선집』, 제주문화원, 1997.
- 좌혜경, 「제주민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 22호, 제주문인협회, 1992. 12.
- 청주문학 편, 「21세기, 지역문학의 전망(좌담)」, 『청주문학』 제10호, 2000.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 탐라문화연구소 편, 『濟州文學(1900~194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현기영, 「4·3을 탐구하면서 재발견한 몇 개의 화두들」, 『제주작가』 4호, 실천문학사, 2000. 5.
- 현길연, 「설화와 제주문학」,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_____, 「제주학 연구 방법-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 _____, 「바다와 섬의 문학과 문학의 본질」, 『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학회 편, 1999.
- _____,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 제주국제학회 제 10회 학술회의의 1999. 9.
- _____, 「제주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제주작가』 4호, 실천문학사, 2000. 5.